

-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필라델피아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금요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소예배실
- 필라선목 필독서 3권 :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대여명부를 작성하시고 가져가셔서 읽으시고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양육 7기 : 오늘 식사 후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 영유아부 예배 및 EM 교회학교 시작 : 다음 주일(9/6)일부터, 11시에 영아부실과 소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WIFI 안내 : SSID: PKMC-Open PW: PraiseGodPKMC
- Check 로 현금하실 경우 Pay to 에 “PKMC”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시간 안내

주일예배	주일오전 11:00 대예배실
교회학교 예배(초등생까지)	주일오전 10:00 소예배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7:30, 소예배실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6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주일오후 2시, 세미나실1 (진행시)
PGS 바이블 아카데미	주일오후 2시, 세미나실1 (진행시)

통역어플 사용안내

App Store에서 “Captionkit”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면
통역 및 자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개인 아이폰 사용)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선한목자교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27)

GOOD SHEPHERD METHODIST CHURCH OF PHILADELPHIA

담임목사 박지훈

ADDRESS 1490 Dillon Rd. Ambler, PA 19002

TEL (215) 654-9101

HOMEPAGE philagsmch.org



주일에배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경배찬송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외 2곡
기도	선교완성을 위한 공동기도문
신앙고백	사도신경
환영인사/교회소식	박지훈 목사
공동체 찬양	"너를 위해 기도해"
성경봉독	요한복음 21장 1-19절
말씀	가스펠프로젝트 신약3-10 마음이 고장났을 때, 예수님과의 약속장소로 나가기
봉헌	"마음이 상한 자를"
축도	박지훈 목사

금요기도회

창세기 강해50	창세기 33:1-20
----------	-------------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1:1-14 새번역

1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2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 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4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5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7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겹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8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 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9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1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11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백선세 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3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14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예배담당 및 순서안내

	8 월 30일	9월 6일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
대표기도	공동기도문	김지영 권사	공동기도문	장호식 집사	공동기도문
봉헌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김지영 권사
안내봉사	박현아 집사 엄인영 집사	박현아 집사 엄인영 집사	박현아 집사 엄인영 집사	박현아 집사 엄인영 집사	박현아 집사 엄인영 집사